

May the Fatherland Shine

文鮮明 선생講演文

演題：祖國이여 빛나라

各界指導層을 爲한

國民思想宣揚 月例 朝餐會에서

日 時：1978년 10월 19일 상오 7시

場 所：조선포텔 그랜드 볼룸

主 催 韓國地域社會開發研究院

後 援 한국일보·서울신문 한국방송공사

日刊 內外經濟 Korea Herald

REVEREND SUN MYUNG MOON
SPEAKS ON
**MAY THE FATHERLAND
SHINE FORTH**



At the Monthly Breakfast Meeting
of the Leaders of Every Field for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Thought

October 19, 1978
Seoul, Korea

祖國이여 빛나라

존경하는 各界 指導人士 여러분 !

오늘 아침 이 뜻깊은 모임에 本人을 불러주시어, 國家中興의 大課業에 中樞의 役割을 擔當하시는 여러분께 말씀 드릴 수 있는 이 機會를 주신 데 對하여 眞心으로 感謝를 드립니다.

本人은 海外에서 여러가지 逆境속에서 오로지 하나님 나라 具現을 위한 宣敎事業에 沒頭하다가 드디어 2년반만에 다시 그리운 祖國땅을 밟았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그 안에 몇번이고 돌아왔어야 할 祖國! 그러나 금번은 2년반동안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프레이저’委員會와의 치열한 對決에서 마지막 매듭을 짓고 돌아오려다보니 그리운 祖國에 돌아오는 길이 2년반이나 늦어지게 된 것입니다.

‘프레이저’議員은 지난 9월 12일 民主黨 豫選에서 드디어 落選되고 말았습니다. 人間的으로 볼 때 그는 대단히 불쌍한 사람입니다. 나는 ‘怨讐도 사랑하여야 하나니 그를 위하여 祈禱하라’고 敎徒들에게 권하였습니다.

그는 이번에 질 수 없는 싸움을 졌습니다. 그 理由는 무엇입니까? 그는 天意를 背反함으로써 敗亡한 것입니다. 聖賢의 말에 “順天者는 存하고 逆天者는 亡한다” 하였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이번에 하나님의 審判을 받은 것입니다.

韓國을 제 2의 越南으로 만들려는 그의 努力은 韓國을 택하시어 하늘의 큰 攝理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正反對의 努力이었습니다. 하나님의 攝理를 알고보니 韓國은 중요한 나라였습니다. 韓國은 앞으로 世界가 共產化되는 것을 막는데 決定的 役割을 할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共產主義의 窮極의 世界制覇를 허락하실 수는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 自身の 敗亡을 意味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歷史的인 有神과 無神 두 理念의 最後對決에서 韓國은 하나님의 選手로 택함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韓國을 破壞하려는 ‘프레이저’議員의 陰謀는 도저히 하늘 앞에 容納될 수 없는 處事였습니다. 本人은 하나님의 審判이 그에게 내려질 것을 명확히 豫知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逆天者의 자리에 섰으니 아무리 한 때 그의 威勢가 당당하였다 할지라도 그의 末路는 悲慘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 누구도 天理를 背反하고 살아남은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프레이저’議員의 敗北는 하나님의 審判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극진히 韓國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骨髓에 사무치게 實感하면서 돌아온 이번 歸國의 길! 몇번이고 내려본 金浦空港이건만은 이번엔 유난히 本人을 반겨 주는 듯 하였고, 故國同胞의 따뜻한 반기는 本人의 靈魂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돌아오자마자 本人은 故國疆土 金수강산 천오백리를 南北으로 달려 보았습니다. 우리의 山川은 유난히도 푸르고 아름답고 世界에 類例를 찾아보기 힘든 秀麗한 江山이었습니다. 그 위에 民族中興을 향해 달리는 祖國의 復興相은 호뭇하기 限이 없었습니다.

故國에 계신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祖國 大韓民國! 우리는

다만 先進國家를 따라가서 만족할 나라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 祖國 大韓民國을 通하여 하나님께서는 偉大한 課業을 이루려 하고 계십니다.

2천년전 아무도 모르는 조그만 마을, 유대 나라 ‘베들레헴’땅에서 偉大한 思想이 出現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의 思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救世思想을 中心으로 2천년 동안 救世運動을 펴 오셨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歷史는 바뀌어 앞으로 共產主義의 魔手에서 世界를 救出하고 땅 위에 天國을 建設할 새 救世理念의 誕生地로 하나님께서는 東方의 작은 나라 韓國을 찾아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任務를 甘受하여야 합니다. 이는 바로 우리 祖國 大韓民國이 영원히 興하는 길이요, 길이 빛나는 길입니다.

오늘 本人은 여러분을 모시고 本人의 이와같은 所信의 一端을 披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創造目的

세계의 모든 宗教는 宇宙의 根本原因을 創造主 혹은 하나님이라는 第一原因을 認定하는 데서부터 出發합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은 흠이시요, 그 하나님은 永遠不變하시고 唯一하시며, 絕對的인 분이여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世上을 지으셨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創造目的이 先行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創造目的도 역시 永遠不變 唯一 絕對的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創造目的은 ‘기쁨’입니다. 기쁨을 누리시고자 人間과 世上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홀로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기쁨을 느끼기 위하여는 반드시 對象 혹은 짝이 必要합니다. 主體와 對象이 서로 相對基準을 이루어 주고 받을 때 비로소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最高의 기쁨은 사랑을 주고 받을 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人間을 對象으로 지으시고, 그 對象과 더불어 無限한 사랑을 주고 받으시며 永遠히 기쁨을 누리시고자 하셨던 것이 創造의 目的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創造目的을 이루시기 위하여 첫 人間祖上으로 一男一女를 지으셨으니, 聖書에서는 이들을 ‘아담’과 ‘해와’라 부릅니다. 그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完全한 기쁨의 對象이 되어 사랑을 주고, 받으며, 善한 子孫을 繁殖하였더라면, 바로 그 家庭이 확대되어 社會가 되고, 그 社會가 發展하여 國家가 되며, 그 國家는 世界로 發展되어 이 地球는 이 ‘아담’族 一族으로 充滿하고, 이 땅위에는 하나님의 善과 사랑을 完成한 기쁨의 世界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 世界를 곧 天國이라 稱하며, 그 天國은 분명히 이 地上에 이루어졌을 터이니, 이 世界는 곧 地上天國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地上天國은 하나님을 중심한 한 家庭이요 人類는 모두 한 兄弟! 거기에는 하나의 傳統과 하나의 文化가 있고, 이는 분명히 하나의 統一世界일 수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人種差別이 있을 수 없고, 言語의 相衝이 있을 수 없고, 國家의 分裂이 있을 수 없고, 理念의 對決이 있을 수 없고, 殺戮相爭하는 戰爭이 있을 수 없습니다.

墮落한 世界

이와 같은 하나님의 理想世界를 그려보며 오늘날의 現實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理想과는 正反對의 世界에 살고 있음을 痛感하게 됩니다.

MAY THE FATHERLAND SHINE FORTH

At the Monthly Breakfast Meeting of
The Leaders of Every Field
for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Thought
October 19, 1978
Seoul, Korea

Respected leaders of every field of endeavor, I am sincerely grateful for your invitation to this meaningful meeting and I am very honored to address the leaders who are the backbone of the development of our nation.

I have been overseas devoting myself to the proclamation of the realization of God's kingdom, even though I encountered many difficulties. Now at last, after two and half years, I could finally walk again on the fatherland I have longed for, this fatherland where I would have so often returned if these were ordinary days! But because I wanted to reach a final conclusion in the intense confrontation with the Fraser Committee, which sank its teeth into our movement and refused to let go, my return to the fatherland I have longed for was postponed two and a half years. Last September 12, Congressman Fraser was defeated in the primary election of his Democratic Party. If we look at him through human eyes, he is truly an unfortunate person; therefore, I said to our church members, "Let us pray for him because we should love even our foes."

He was defeated in a battle which seemed impossible to lose. What is the reason for this? He was defeated because he had been going against God's will. According to a holy man's words, "People who are for heaven remain, and people who are against heaven are destroyed." That is to say, Congressman Fraser received God's judgment during that election.

Fraser's efforts to turn Korea into a second Vietnam were exactly opposite to the will of God who had chosen Korea to accomplish heaven's great providence. Once we know God's providence, we can understand that Korea is an important nation. Korea is a nation which can play a decisive role in stopping the world takeover of communism in the future. God can never permit world domination by communism. That would mean the destruction of God Himself.

In this last historical battle between the ideologies of theism and atheism, Korea has been chosen as God's champion.

Therefore, Congressman Fraser's plot to destroy that same Korea was an unforgivable effort before heaven. I could clearly foresee that God's judgment would come upon Mr. Fraser. Since he stood in the position of a person against heaven, I knew that no matter how great his power was, in the end he would be miserable. No one who opposes the principles of heaven can survive and remain. Therefore, we can only say that the defeat of Congressman Fraser was the judgment of God.

On my return to Korea this time I could feel to the marrow of my bones that God loves Korea very much. This time as I looked down on Kimpo airport, which I have seen so many times before, it seemed to be welcoming me in a special way. The warm welcome of my fellow countrymen has moved my spirit very much.

As soon as I returned I traveled the 6,000 kilometers from the north to the south. I wanted to see again our mountains and rivers which are as beautiful as silk embroidered paintings. It is hard to

find the greens and blues of our mountains and rivers, and their grace, anywhere else. In addition, the many aspects of our country which are heading towards national development please me without end.

Brothers of my homeland, you have truly done mighty works. As we catch up with the developed nations, we must not become satisfied as they have. God is trying to accomplish a great task through our fatherland, the Republic of Korea.

Two thousand years ago in the little village of Bethlehem of Judea, which was known to no one, a great thought appeared. That was the thought and teaching of Jesus. Centering on that thought concerning the salvation of the world, God has carried out His work for two thousand years.

Now once more history has changed. Today God is looking at a small nation of the Orient, Korea, as the birthplace of a new ideology for world salvation, an ideology which will establish the Kingdom of Heaven on earth and deliver the world from communism's evil hand. We must joyfully take on this task which God is giving us. This is precisely the way to eternal prosperity for our fatherland, the Republic of Korea; it is the eternal and shining way.

Today I wish to share frankly this part of my faith with you.

God's Purpose of Creation

All religions of the world start by recognizing the ultimate cause of the cosmos, or the first cause, as the Creator, God. If God exists, then He should be good, and He is eternal, unchanging, unique and absolute.

God's purpose of creation is joy. It was to experience joy that God created the world and mankind. In order to feel joy, however, one must definitely have an object or a partner. When a subject and object form a reciprocal relationship and have give and take action, then they can finally feel joy. Furthermore, the greatest joy can be felt when love is being given and received. Therefore, God created mankind as His object and through an infinite give and take of love for eternity, God wanted to experience joy eternally with man. This was God's purpose of creation.

In order to accomplish this purpose of creation, God created one man and one woman as the first ancestors of mankind. In the Bible they are called "Adam" and "Eve." If Adam and Eve had become the complete objects of God's joy—as they had give and take of love and multiplied descendants of goodness, and as that family multiplied into a society, the society developed into a nation, the nation developed into a world, and the whole earth became filled with one tribe of Adam—then on this earth there would have been a world of joy which accomplished God's goodness and love. That world would have been called the Kingdom of Heaven, and this Kingdom of Heaven would have been established on the earth.

The Kingdom of Heaven on earth is one extended family centering on God where all mankind are brothers and sisters. There would be one culture and one tradition, and it would clearly be a united world. There could be no racial problems; there would be no differences of language, divisions among the nations, or confrontations of ideologies, and there would be no killing and no wars.

The Fallen World

If we imagine this world of God's ideal and we look at the world in which we are living today, we feel strongly that we are living in a world exactly opposite to God's ideal.

First of all, today we can see that even as individuals we are

우리는 오늘 우선 우리의 한 몸 안에서 마음과 몸의 分裂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 世界는 分裂의 世界입니다. 國家의 分裂, 言語의 分裂, 文化 傳統의 分裂, 人種의 分裂, 理念의 分裂, 사랑의 分裂, 이와같은 分裂속에서 人間歷史는 鬭爭과 戰爭과 殺戮의 連續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보아도 天國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地上地獄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人間始祖 ‘아담’ ‘해와’가 墮落했기 때문에 빚어진 結果입니다. 墮落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拒逆했다는 말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臨在하실 수 없는 歷史가 시작되었고, 人類歷史는 이 하나님을 拒逆한 歷史의 連續으로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天國復歸

本人은 앞에서 하나님의 創造目的이 永遠不變 唯一 絕對的이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人類祖上의 反逆으로 실사 墮落世界가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根本 理念과 目的이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어코 初志를 貫徹하실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어코 하나님 本然의 創造理想을 이루셔야 합니다. 그러니 人間墮落 이후 하나님이 束手無策으로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人間墮落 이후의 하나님의 뜻은 墮落된 人間을 救援하시는 救援의 歷史입니다. 救援이란 무엇입니까? 병난 사람을 병나기전 狀態로 고쳐주는 것이 救援입니다. 그렇다면 병든 이 墮落世界를 墮落以前의 本然의 世界로 還元시키는 것이 곧 救援입니다. 그러니 救援은 原形으로 돌아가는 것, 곧 復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곧 이 墮落世界를 清算하시고 墮落以前 하나님이 計劃하셨던 本然의 理想世界로 復歸케 하는 役事를 하여 내려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使命은 復歸完成

지금부터 2천년전 하나님께서는 救世主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이 땅 위에 보내시었습니다. 그를 보내신 目的은 바로 墮落人間의 救援입니다. 그리고 救援은 곧 復歸라 하였습니다. 메시아가 世上을 救援한다는 말은 바로 이 世上에 天國을 回復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2천년전 메시아는 분명히 이 땅 위에 오셨는데 아직도 이 世上에는 天國이 建設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問題입니다. 예수님은 “天國이 가까왔나니라”하고 天國到來를 宣言하였지만 그 天國到來는 이루어진 흔적이 없고, 오히려 예수님은 罪人으로 몰려 十字架에 못박히는 悲運을 招來하였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 뜻이 2천년 전에 完全히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을 立證하는 것입니다. 그 理由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選民의 無知와 不信

그 理由는 ‘이스라엘’ 選民의 無知와 不信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기 전 4천년동안 ‘이스라엘’이란 選民을 모아 役事하여 오신 것은, 메시아가 오실 때 그 메시아를 맞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는 意圖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選民들은 막상 메시아가 오셨을 때 하나님의 뜻을 正確하게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 로마의 虐政下에 있는 자기네의 怨讐를 갚아주고, 힘으로

로마를 征服하여 일약 選民 ‘이스라엘’이 君王의 權勢로 世界에 君臨할 것을 꿈꾸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權力의 메시아, 武力의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天國理念은 武力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天國理念은 眞理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더구나 메시아는 ‘이스라엘’에게만 解放을 주고 그들에게 王權을 주러 오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選民을 희생시켜서라도 世界의 救援을 꾀하러 오시는 줄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政治的인 勝利와 利己的인 權勢爭奪을 꿈꾸던 ‘이스라엘’ 選民앞에 비친, 맨발 벗고 초라하고 無力한 예수님의 모습은 메시아로서는 落第生이었습니다.

‘이스라엘’ 選民은 모셔야 할 메시아를 도리어 十字架에 못박고 말았으니, 이는 하나님에게 있어 더없는 悲劇이요, 人類에 있어 더 없는 不幸이요, 하나님의 天國實現의 뜻은 그 時點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未來의 어느 時點에 다시 메시아를 地上에 보내시지 아니할 수 없는 破局을 招來했다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 곧 救世主를 다시 보내시는 날을 우리는 “再臨의 날”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 때에 完結을 보지 못한 채 다시 再臨의 날까지 延長되어 내려왔습니다. 예수께서 十字架에 못박히시는 그 날부터 하나님은 再臨의 날을 準備하시기에 餘念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歷史는 약 2천년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바야흐로 末世라 부르짖는 소리가 높아가며, 메시아의 再臨을 기다리는 소리는 四海에 충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난 2천년간 어떤 歷史를 이루셨으며, 또 새 歷史의 실마리는 어떻게 풀릴 것인가?

메시아의 再臨을 爲한 제 2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제 2의 메시아를 보내시기에 앞서 먼저 하실 일은, 또 하나의 選民을 이룩하시는 일입니다. 基礎가 없이 집을 지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選民이라는 基盤이 없이 메시아를 보내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降臨에 앞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選民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結論적으로 말씀드리려 새로 오시는 메시아를 맞기 위한 世界的 選民으로 뒹으신 터가 곧 오늘날 世界的 版圖를 갖는 基督教인 것입니다.

‘베들레헴’ 말구유 위에 태어나신 예수의 가르침은 지난 2천년을 내려오면서 世界的宗教가 되었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再臨이라는 한 때를 바라보며 世界的인 選民을 造成하시려는 하나님의 攝理에서 온 結果인 것입니다.

오늘날 基督教의 使命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다시 보내실 때, 그 메시아를 迎接하며 모시는 일입니다. 2천년전 ‘이스라엘’ 選民들과 같이 絕對로 그를 다시 十字架에 못박아서 아니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基督教은 名實共히 第2 이스라엘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다시 보내시기 전에 반드시 成就하셔야 할 두가지 重要한 宿題가 또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高度의 物質文明의 發達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곧 地上天國이 이루어진다는 말인데, 그것은 靈的인 天國만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라 肉의 天國 또는 物質的 樂園도 意味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메시아의 再臨과 더불어 成就될 高度의 精神文明을 담을 수 있는 그릇, 말하자면 高度의 物質文明의 世界를 準備하실 必要가 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理想에서는 世界가 한 나라이니, 그 世界가 科學의 發達로 말미암아 交通과 通信手段이 高度로 發達하여, 온 人類가 一日生活圈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地上天國 建設에 있어 지극히 重大한 要素입니다. 이는 統一世界 文化創造에 必要 不可缺한 條件입니다.

divided between mind and body. Our world nowadays is a world of division: division of nations; division of cultures and traditions; division of races; division of ideologies and division of love. Because of divisions like these the history of mankind has been a succession of wars, battles, and killing one another. No matter how we look at it, we cannot call this the Kingdom of Heaven.

It is true that we live in hell on earth. This is the result which came about because the first ancestors of mankind, Adam and Eve, fell. To say they fell means that they disobeyed God and separated from Him. Therefore, history began where God could not dwell directly. The history of mankind has been a succession of disobedience to God, right up to the present.

God's Will is the Restoration of Heaven

I mentioned before that the will of God is eternal, unchanging, absolute and unique. Therefore, even though the fallen world came about through the betrayal of the first ancestors of mankind, the original ideal and purpose of God have not changed. God is He who will accomplish His original will.

God must finally accomplish His original ideal of creation. Therefore, after the fall of man God could not just stand by. After the fall of man, God's will became the history of salvation to save fallen mankind. What is salvation? Salvation is restoration of an ill person back to his original state of health. Then in relation to our fallen world, salvation is restoration of our world back to its original state before the fall. That is to say God has worked to end this fallen world and to restore the original ideal world He planned before the fall.

The Messiah's Task is the Accomplishment of Restoration

Two thousand years ago God sent the savior Jesus Christ to the world. The purpose of sending him was the salvation of a fallen mankind, and salvation can be said to be restoration. To say the Messiah saves the world means that he restores the Kingdom of Heaven on earth.

Even though the Messiah definitely came to the earth two thousand years ago, the Kingdom of Heaven has still not been established. This is an important problem. Jesus proclaimed the coming of the Kingdom of Heaven.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But there was no sign that the Kingdom of Heaven was at hand. Rather, Jesus was judged as a criminal and nailed to the cross in a miserable destiny. This is a testimony to the fact that God's will in sending the Messiah was not completely realized two thousand years ago. What could be the reason for this?

The Ignorance and Disbelief of the Chosen People of Israel

The reason lay in the ignorance and disbelief of the chosen people of Israel. God nurtured and led the chosen people, the Israelites, for 4,000 years before he sent the Messiah because He intended for those people to accomplish His will by receiving the Messiah when he came. But when the Messiah came in reality, the chosen people of Israel did not know God's will exactly.

They dreamed that when the Messiah came, they, who were suffering under their Roman conquerors, would revenge themselves and conquer Rome by power in one mighty leap. They thought that the chosen people of Israel would reign over the whole world with the power of emperors. The Messiah they wanted was a Messiah of power who used the force of arms. But the Messiah's ideal of the Kingdom of Heaven cannot be realized by force of arms. God's ideal of the Kingdom of Heaven can be realized only by truth and love.

The chosen people of Israel rejected the Messiah whom they should have served. Moreover, they did not realize that the Messiah came to save the whole world even at the expense of sacrificing the chosen people of Israel. Rather they believed that he would give freedom to their nation alone and would give them royal authority. Jesus' barefoot, shabby and powerless appearance was a failure in the eyes of these people who dreamed of attaining self-centered power and political victory through fighting.

It can be said that there could be no greater tragedy than this and there could be no greater misfortune for mankind. The sad outcome was that God's Kingdom could not be realized at that time and it became necessary for God to send the Messiah again in the future.

We call the days in which God will again send the Messiah as savior, the days of the Second Advent. God's will, which was not fully accomplished in the days of Jesus, has been extended to the Second Advent. From the very day Jesus was nailed to the cross, God has devoted Himself to preparation for the day of the Second Advent. Two thousands years of history have passed since that time. Nowadays, the voices which proclaim the coming of the last days are growing louder and louder. We can understand that people all over the world are waiting for the Messiah. Then what kind of history has God been accomplishing for the last two thousand years, and what is the key for beginning the new history?

The Second Israel for the Second Advent of the Messiah

Before sending the second Messiah, God will prepare another chosen people. Just as one cannot build a house without a foundation, God cannot send the Messiah without the foundation of a chosen people. Before sending Jesus Christ God prepared the chosen people of Israel, and accordingly, one can conclude that God has laid a foundation of a worldwide chosen people to receive the coming new Messiah. This is Christianity, which has reached all over the world.

The teachings of Jesus, who was born in a manger in Bethlehem, have become the foundation of a worldwide religion throughout the last two thousand years. This is the result of God's providence to form a worldwide chosen people in expectation of the day of the Second Advent. The task of Christianity nowadays is to welcome and serve the Messiah when God sends him again. Christians absolutely must not nail him to the cross again as the chosen people of Israel did two thousand years ago. Christianity today stands in the position of the second Israel in both name and reality.

Moreover, God has two important tasks which He needs to have accomplished before sending the Messiah again. One of them is the creation of a highly developed material civilization. To say that God's will is accomplished is to say that God's Kingdom of Heaven on earth is realized. This doesn't mean only spiritual Kingdom of Heaven, or paradise in the material sense. It is necessary for God to prepare a vessel to contain the highly developed spiritual culture which will come into being with the Second Advent of the Messiah. This vessel is the highly developed material civilization. Moreover, since in God's ideal the world is one nation, in that world all mankind will live in close contact with one another through the modern means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made possible by the development of science. This development is a very important element for the construction of the Kingdom of Heaven on earth and is a necessary and indispensable condition for the creation of the culture of a united world.

그러므로 英國에서 일어난 産業革命을 始發點으로 하여 불과 지난 數世紀동안에 高度의 物質文明을 이룩하신 것도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Master Plan)속에 計劃된 것입니다. 最近 아폴로 11호의 달 着陸을 온 世界 人類가 同時에 텔레비전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었다는 이 自體가 오늘 人類는 共同 生活圈 안에 살고 있으며,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와 있음을 意味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準備하실 또 하나의 일은 메시아가 降臨하실 수 있는 環境을 造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함부로 사람을 잡아 죽일 수 없는 法治制度의 創建입니다. 예수님의 時代만 하더라도 사람 목숨은 權力者 앞에 파리 목숨과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爲政者나 權力者들이 원한다면 언제나 파리잡듯 잡아 죽임을 당하는 無法天地의 制度下에서 태어나셨습니다. 根本的인 人間革命을 부르짖으시는 革新的인 예수님의 말씀이 그 社會制度 밑에서 容納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十字架에 못박히시게 된 것은 當時의 制度下에서는 피치 못할 事情이었다 하겠습니까. 이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다시 오시는 再臨時에 무엇보다 必要한 것이 사람을 함부로 잡아 죽일 수 없는 法治制度인 것을 아십니다. 이를 위하여 2천년동안 애써 準備하신 制度가 곧 오늘날의 民主主義 입니다.

民主主義는 人權을 존중하는 制度입니다. 民主主義는 少數派도 多數派 속에 끼어 살아남을 수 있는 制度입니다. 民主主義는 곧 自由를 보장하는 制度입니다. 그 自由가 곧 言論의 自由요, 結社의 自由요, 出版의 自由요, 集會의 自由입니다. 그 民主主義의 代表國이라 볼 수 있는 美國의 憲法을 보면, 自由 가운데 가장 절대적인 自由가 宗教의 自由이며, 美國 議會와 政府는 宗教를 規制할 수 있는 어떠한 法도 만들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制度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나타나시어서 革命的인 布教를 하신다 할지라도 그가 다시 十字架에 달리지 아니하고 살아남으실 수 있는 制度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再臨의 한 날을 위하여 피땀 흘려 準備하신 制度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근한 例를 들어 革命的인 새 眞理를 傳布하는 統一敎會가 美國에서 설사 그들의 비위에 다소 거슬린다 할지라도 오늘날 美國이 갖는 法과 制度로써는 이를 十字架에 못박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상 再臨의 때가 가까이 오면 하나님께서는 제2 이스라엘의 世界的 版圖 속에서 하나의 중심되는 基督敎國家를 택하실 필요가 있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窮極의 地上天國 理念은 이 땅 위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理想이므로, 어떠한 中心點에서부터 출발하여 점차 世界로 波及되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標本이 될만한 國家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더 말할 나위도 없이 末世에 그 中心的인 하나님의 攝理를 감당할 수 있는 나라로서 오래전부터 豫定하시고 그 豫定에 따라 택함받은 나라가 곧 美國인 것입니다.

美國은 택함받은 나라요 하나님 攝理의 中心國家

이제 잠시 저 美國의 國家形成過程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美國은 저렇게 엄청난 大陸이면서도 最近 1,500년대까지 發見되지도 않은채 放置되어 있던 大陸입니다. 이것은 끝날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려고 몰래 감추어둔 것이라 解釋할 수 있습니다.

또 美國은 그 國家形成이 移民으로부터 되어진 나라입니다. 말하자면 美國은 主人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原住民인 ‘인디언’이 있었지만 ‘인디언’은 主人 노릇을 못했습니다. 결국 主人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主人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뽑으시는 특별한 사람들만이 가서 살게 된 나라입니다. 歐羅巴大陸에서 美國

을 新天地라 불렀고, 最初로 이곳 新天地에 所望을 품고 移民한 사람들은 곧 信仰의 自由를 찾아 하나님을 모시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舊世代의 虐政 밑에서 완전히 所望을 잃고, 설사 大西洋바다 위에서 生命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내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곳에 가자고 悲壯하게 出發하여 ‘메이 플라워’(May Flower)라는 조그만 帆船을 타고 57일간의 艱難한 航海 끝에 美國 ‘뉴 잉글랜드’ 地方에 上陸한 것이 곧 美國의 祖上 ‘필그림 화더’(Pilgrim Fathers)들이었습니다.

그들은 海航도중에 많은 희생자를 냈고 上陸해서 첫 겨울을 지나는 데 또 절반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信仰을 生命보다 더 貴重하게 여긴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곧 美國의 祖上이 되고, 이들의 精神이 美國의 建國精神이 되었다는 것은 절대로 우연한 일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唯一 한 나라(One Nation Under God)”라는 모토가 美國의 建國精神이 된 것은, 이 나라를 세워서 메시아를 다시 맞는 基督敎國家의 중심을 삼으시려 했던 하나님의 뜻을 역력히 立證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이 肥沃한 大陸에 하나님을 信奉하는 五色人種들이 모여 超民族的 基督敎國家를 이루었으니 이는 앞으로 이루어질 地上天國의 模型인 것입니다.

이제 美國은 하나님의 뜻을 중심하고 世界救援의 旗手가 되어, 敎會와 國家가 하나로 뭉쳐 하나님의 歷史的 所願인 世界救援의 뜻을 達成하고, 하나의 世界家族 그리고 統一文化를 이룩해야 할 重大한 使命을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또 末世에 일어나는 人類歷史 최후의 악한 勢力 共產主義에 對備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불과 2백년동안에 이 荒蕪地에서 태어난 新生國家 美國을 世界的 最強國家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제 美國 國民이 깨달아야 할 것은, 오늘날 美國이 享有하는 하나님의 祝福이 美國만을 위한 祝福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祝福은 世界를 위한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는 祝福인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美國 國民들은 基督敎精神으로 완전히 武裝되어, 世界人類 救援을 위하여 어떤 犧牲과 十字架도 사양치 않겠다는 決意에 불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어서 美國이 지니는 가장 重大한 使命은 共產主義의 魔手로부터 自由世界를 보호하고, 궁극에 가서는 共產主義마저 解放시킬 수 있는 原動力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택함받은 나라 美國안에서 일어나는 不吉한 徵候

그런데 그 美國은 지난 1945년 제2차대전의 勝利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本然의 뜻을 離脫해가는 不吉한 徵候를 보이고 있으니, 이는 심히 두려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本人은 美國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합니다. 다음 이야기는 美國의 國會 議員들이 모인 講演會에서 한 말입니다. 누군가가 美國을 깨우쳐야 하기 때문에 이 말을 했습니다.

첫째, 두차례의 世界大戰을 勝利로 이끄신 것은 하나님이시요, 또 美國으로 하여금 世界國家型인 유엔을 編成케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보면 본래 유엔은 基督敎精神을 중심삼은 世界的 國家들이 結束하는 本營이 되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共產主義國家를 포함하는 유엔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The realization of the highly developed material civilization, which started from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England and has continued through the last few centuries, is all part of God's master plan. The very fact that men all over the earth could simultaneously watch the landing of Apollo 11 on the moon shows that today we are all living within a common boundary, and this means that the day of God is at hand.

God must also form the circumstances in which the Messiah can come. What does this mean? It means the creation of a system of law such that people cannot kill others at will. If we look at the time of Jesus, people's lives were as insignificant as flies to the persons in power. The system of laws into which Jesus was born was just like a world without laws. If the administrators or persons of power wanted to have him killed, it could be done as easily as killing a fly. Jesus' proclamation of a fundamental human revolution could not be permitted or accepted under the system of that society. We can say that the fact that Jesus was nailed to the cross was an almost unavoidable occurrence under the system of those days. God, who knows this so well, knows that one of the most necessary things for the days of the second advent of the Messiah is a system of laws in which a person cannot be killed just because it is someone else's will. The system which God prepared for the last two thousand years is democracy. Democracy is the system which respects human rights. Democracy is the system in which a minority group can survive in the midst of a majority group. Democracy is the system which guarantees freedom of speech, freedom of association, freedom of press, and freedom of assembly. If we consider the Constitution of America, which can be regarded as the representative nation of democracy, the most absolute freedom among all freedoms is the freedom of religion. It is stated in the Constitution that the American Congress and Government shall not make any laws which can restrict religions.

This is the system in which God's son can come and even preach a revolutionary message without being nailed to the cross again. To take a familiar example in this light, the Unification Church has preached a revolutionary message in America and has incurred the displeasure of some Americans, but they could not nail our church to the cross.

When the days of the Second Advent come, God will need to choose one central nation from among the worldwide second Israel of Christianity. What does this mean? Since the ultimate ideal of the Kingdom of Heaven on earth which God is trying to accomplish is an ideal which is realized on earth in reality, it should spread step by step to the world after starting at a certain central point. That is to say, there should be a nation which is adequate to be a model. The nation which is capable of carrying out God's central providence in the last days, the nation which was predestined long ago and chosen according to that predestination, is America.

America is the Chosen Nation and the Central Nation of God's Providence

Now for a short time I would like to look back on the formation of America. In spite of its being such a mighty continent, America went unnoticed until the 1500s. We can explain this by thinking that God planned to use it in a special way during the last days and therefore hid it away secretly.

America is a nation which began through immigration. That is to say, America had no owners. The original inhabitants, the Indians, lived there but did not fulfill the role of the owner of the

nation. In the end, because there was no owner we can say that God was the owner. Therefore, America was a nation to which only the special people whom God had chosen could go. On the European continent people called America the "New World." The first people who immigrated there were those who came with hope to serve God and who were seeking freedom of religion.

They had lost hope so completely under the ancient tyrannies that they left their homelands even though they knew they might lose their lives while crossing the Atlantic Ocean. They had an heroic determination and sailed for 57 days on the tiny ship Mayflower with their lives constantly in peril on the rough seas. After the difficult voyage, they finally landed in the New England area of America. These people were the "Pilgrim Fathers"—the ancestors of America.

During the voyage many of them died, and another half of them died during the first winter after they landed. They were people who thought God and faith were more important than their lives. It cannot be called accidental that they became the ancestors of America and their spirit became the founding spirit of America.

The fact that the motto, "One Nation Under God," became the founding spirit of America gives clear proof of God's will to establish this nation and make it a central Christian nation which could receive the Messiah again. Therefore, all men who believed in God gathered together in this fertile land which God had hidden away and made a Christian nation of all races. This is the model of the future Kingdom of Heaven on earth.

Now, centering on God's will, America has become the flag bearer to save the world. By religion and the nation uniting together, it is accomplishing God's historical wish for the salvation of the world, a one world family and a united culture. America has taken on the burden of this important task to accomplish God's historical wish of world salvation.

Out of virgin land God made this newborn America the most powerful nation in the world in just two hundred years, in order to prepare for the struggle against communism, the final evil power which would appear in the last days. Now the American people should realize that God's blessing which they are enjoying today is not a blessing only for America. They should realize clearly that this blessing is for the world and brings with it the responsibility of fulfilling God's will.

The American people should be burning with determination to save the people of the world, even if they would have to suffer martyrdom. Armed with the spirit of Christianity they should be willing to go the way of the cross. From God's point of view the most important new task for America is to protect the free world from communism and to become the driving force which can eventually liberate even the communists.

Ominous Signs Appearing in the Chosen Land of America

Since 1945, after the victory of the Second World War, America has been showing ominous signs that it is falling away from God's will. This is a fearful thing. I say this because I love America. I said the following words at a meeting with American congressmen because someone has to awaken America.

First, it was God Who, through America, brought about the victories of the first two World Wars and Who brought about the United Nations, which is like a global nation. From the viewpoint of God's will, originally the United Nations should have been the headquarters for all the countries of the world which were centered on the spirit of Christianity. A United Nations which included

그리고 美國은 勝戰後 戰後처리를 잘못 했습니다. 2차大戰에 勝利한 聯合國과, 敗戰한 同盟國家들이 統治했던 나라들까지 올바르게 보호, 하늘 것으로 管理할 責任이 美國에 있었습니다. 만일 美國이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알았다면 사탄편 國家인 蘇聯을 당당히 制壓하고 世界萬邦의 自由國家들을 모아 民主世界로 結束시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全世界를 復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美國은 당시 아시아諸國과 東歐衛星國家를 共產側에 내어주었고 韓國과 獨逸을 兩斷시키는 悲劇을 招來케 했습니다.

2차大戰의 勝利는 하나님께서 自由世界의 版圖를 넓히고 共產主義를 制壓하시고자 祝福하신 것이었으나 結果的으로 美國은 젊은이들의 피의 犧牲을 헛되이 만들고, 하나님을 否定하는 不俱戴天의 怨讐인 共產世界를 이롭게 했을 뿐입니다. 젊은이들의 怨恨과 피의 호소가 아직도 그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더구나 美國은 自由陣營을 守護해야할 聖職에서 후퇴함으로써 越南과 같이 美國의 保護 밑에 있던 나라들을 하루 아침에 共產國에 祭物로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美國의 國際威信은 땅에 떨어지고 怨望의 소리는 날로 높아갑니다. 오늘날 유엔은 그 本然의 機能을 상실한 채 共產國家들의 宣傳의 舞臺가 되어 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美國에는 여러가지 심상치 않은 일들이 날로 더해 가고 있습니다. 黑白人種 문제가 바로 그것이고, 젊은이들을 썩히는 麻藥문제가 그것입니다. 靑少年 淪落과 家庭破綻, 날로 激增하는 暴力犯 등 그 어느 하나도 深刻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浸透해 들어오는 共產主義 문제는 가장 致命的인 打擊입니다.

극도의 個人主義의 人生觀과 價値觀으로 肉的享樂에 뛰는 美國의 現社會, 이대로 가다가는 하나님은 분명히 떠나실 것이요, 美國은 하나님의 所望과 그 計劃을 失敗로 이끈 것이 明若觀火합니다.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어찌하실 것입니까?

빛은 東方에서

하나님께서서는 이 美國의 現實을 如實히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美國이 이렇게 될 것을 豫想하셨다 해도 過言은 아닙니다. 物質文明을 중심으로 하는 西歐文明은 오늘날 美國과 같은 事態를 惹起하는 것이 必然的 結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物質文明은 어디까지나 몸이요, 마음은 아닙니다. 오늘의 美國이 하나님이 만드신 몸이라면 이 몸에 담으실 마음은 元來 東洋에서 일으킬 것을 計劃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東洋의 마음과 西洋의 몸이 합하여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우리 世界는 온전한 사람의 구실을 다할 수 있도록 設計하셨습니다. 지금 西歐文明은 일대 마음혁명, 혹은 精神革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精神革命은 西歐社會에서는 期待할 수 없는 立場입니다. 이는 반드시 東洋에서 일어나야만 합니다.

여기에서 잠깐 英國의 碩學 ‘아놀드 토인비’博士의 豫言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는 유명한 歷史家인 동시에 哲學者입니다. 그의 透徹한 歷史觀은 너무도 銳利하게 未來를 꿰뚫어 내다보기 때문에, 그는 歷史家의 領域을 벗어나 하나의 豫言

家로 推仰받았던 사람입니다. ‘토인비’博士는 과연 놀라운 豫言을 했습니다.

“基督敎를 중심으로 하는 西洋文明은 지금 그 滅亡의 直前に 다달았다.”

이렇게 西歐文明의 沒落을 豫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歷史의 目的은 文明의 發達에 있는 것이 아니다, 文明의 興亡은 실은 高等宗教의 出現을 위한 수단이었다”고—.

바꾸어 말해 본다면 ‘토인비’博士는 歷史의 흐름에 있어 그 目的이 文明을 發展시키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文明은 어디까지나 수단이고, 오히려 宗教의 進歩發展만이 歷史의 참된 目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沒落하는 西歐文明을 救出하는 새로운 高等宗教는 東洋에서 期待된다고 했습니다. “빛은 동방에서……”이 말은 ‘토인비’博士의 有名한 豫言입니다.

이 아침에 本人은 革命的인 發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토인비’博士가 말하는 그 빛, 世界를 살릴 수 있는 새 宗教理念은 韓國에서 出現할 것이라고 주저없이 宣言하는 바입니다. 아니 그 精神革命의 烽火는 이미 韓國에서 들리어 이미 世界를 향하여 이글이글 타고르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西歐文明속에 飛火되어 超國家, 超民族의 次元에서 수천수만 수십만의 젊은이들의 가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새 價値觀과 새 人生觀이 들어 박혔습니다. 徹底한 道德革命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世界人類 救援을 위한 犧牲的인 奉仕가 實踐되고 있습니다.

그 精神革命의 烽火가 바로 統一敎會運動인 것입니다. 이 精神革命을 올바르게 美國의 物質文明과 접붙이게 되면 이는 마음과 몸이 만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 美國은 마음을 만나니 所望이 있고 韓國은 몸을 만나니 所望이 있습니다. 그리고 韓國과 美國이 합하여 한 몸이 되어서 世界 救援運動에 나설 때 世界는 所望이 있습니다. 이 精神革命의 힘은 世界 共產主義를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이 精神革命의 衝擊이 얼마나 컸다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은 實例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美國에서 많은 物議를 일으킨 本人에 대한 그 非難의 兇점은 美國의 젊은이들을 洗腦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精神運動의 衝擊이 얼마나 컸으면 똑똑한 美國 사람들이 本人에게 자기네들을 洗腦한다고 말하겠습니까!

本人은 1975년 12월 18일 美下院議員들 앞에서 講演을 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명하신 의원여러분에게 한마디 물어 봅시다. 미국사람들이 한국에서 온 이 사람, 언제나 통역을 두고 설교하는 이 Rev. Moon에게 세뇌를 당할만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本人의 이 말에 議員들은 명답을 들었다 하였습니다. 美國 統一敎會 안에 몰래 浸透한 한 新聞記者는 統一敎會 선반 구석구석을 뒤지며 Rev. Moon이 洗腦工作에 쓰는 약병을 찾기에 血眼이 되었다 합니다. 무슨 약을 먹여 洗腦하는 줄 안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우리 一和人蔘茶 병을 찾아 냈습니다. 우다! 이것이다! 하고 가지고 가서는 아무리 먹어 보아도 어떠한 精神的인 變化도 일어나지 않고 기분만 좋더라는 것입니다.

communist nations was not God's will.

After the victory of the Second World War, America did not play its role properly. America had the responsibility to guide in a proper way the victorious Allied nations and the defeated Axis nations which they governed. America had the responsibility to manage them as God's nations. If America had understood God's will clearly, it would have realized that a very good opportunity was at hand to overtake the Soviet Union, which is a nation of Satan's side, and to restore all the world to God's will. Instead, at that time America allowed many nations in Asia and Eastern Europe to be taken over as satellite countries by the communists.

The tragic division of Korea and Germany at that time has caused much misery. The victory of the Second World War was God's blessing through which He intended to widen the free world and to overtake communism. But if we look at the final results, it seems America let the blood of its young men be spilled in vain and instead gave benefit to the communists, even though they are proven adversaries who deny God. Americans should know that the blood of those young men cries out even today.

Moreover, by retreating from her holy position to protect the free world, America has given away even more offerings to the communists, nations such as Vietnam which were under its protection. Because of this, the international stature of America has fallen, and the voice of resentment against it is growing louder and louder every day. These days the United Nations has become a forum for the propaganda of the communist countries, thereby losing its original function.

This is not all. Day by day in America more serious things are happening. The racial problem between whites and blacks and the drug problem which is destroying American youth are some of its worsening problems. The immorality of youth, the breakdown of the family, and violent crime continue to increase. There are many other serious problems as well, but among them, the infiltration of communism is the most deadly attack.

The present viewpoint of life in American society centers on a search for physical pleasure with a standard of value of extreme individualism. If it continues like this, God will surely leave America and America will cause God's plan to fail. This is very clear and apparent. What shall God do at this point?

Light from the East

God sees the situation in America in all its stark reality. It would not be exaggerating to say that God foresaw the possibility that America would become like this. It can also be said that Western civilization, which centers on material values, would inevitably bring about conditions like these in America.

From my viewpoint it is clear that material civilization is like the body, not the spirit. If America today is a body which God made then God surely planned to make a spirit to fill this body, and He intended to raise it up first in the Orient. If the spirit of the East and the body of the West become one, then at last our world would function as the complete being that God designed it to be. Today Western culture is waiting for an intellectual or a spiritual revolution. But the situation nowadays is such that this spiritual revolution cannot be expected to come from Western society. It should be raised up in the Orient.

Here for a moment I would like to look at the prophecy of the outstanding English scholar, Arnold Toynbee. He was a famous historian and philosopher. His brilliant viewpoint of history anticipates the future very keenly. Because of that, he is respected as a

prophet even beyond his field of history.

He prophesied the collapse of Western civilization, saying, "Western civilization centering on Christianity has reached the verge of destruction." He also said the following: "The purpose of history doesn't dwell in the development of civilization. The progress and decline of civilizations was in reality a method for the realization of higher religions."

If we express it another way, Dr. Toynbee says that the goal of the stream of history doesn't lie in the development of civilization, but rather that civilization is at best only a means for the advancement and development of religion, which is the true purpose of history.

Furthermore, he said that it can be expected that a higher religion will appear in the Orient, a religion that can save collapsing Western civilization. "Light from the East" is the famous prophecy of Arnold Toynbee.

This morning, even though it may seem revolutionary, I proclaim without hesitation that the light which Toynbee spoke about, the new religious ideology which can save the world, will appear in Korea. Yes, I should say the beacon fire of that spiritual revolution has already been raised up in Korea. It is already burning brightly for the world.

Even now Western civilization is bursting into flame! On a supra-national level and a supra-racial level, hundreds of thousands of young people have a flame in their hearts already. In them a new standard of value and a new viewpoint of life have already been fixed. A complete moral revolution is arising. Sacrificial service for the sake of mankind all over the world is being practiced.

The beacon fire of that spiritual revolution is the movement of the Unification Church. If this spiritual revolution is properly grafted to the material civilization of America, then that will be the moment when the spirit and body meet.

At that moment America will have hope because it will meet with spirit, and Korea will also have hope because it will meet with the body. Therefore, if America and Korea become one, when they go forward to begin the movement for the restoration of the world there will be hope in the world. This power of spiritual revolution is the power which can defeat world communism. I'll explain how big the shock of this spiritual revolution is by mentioning the following example.

In America the main accusation against me, as a person who created so many controversies and problems, is that I brainwash the youth. The shock of this spiritual movement is so large that intelligent American people said I brainwashed their children.

On December 12, 1975 when I spoke at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of the U.S. Congress, I said this: "Let me ask you distinguished congressmen a question. Are you dumb enough to be brainwashed by me, this man who came from Korea and always has to speak through an interpreter?"

In response to my words, the congressmen said they had heard a wise answer.

It is said that one reporter sneaked into the Unification Church in America and made a desperate attempt to find bottles containing the drugs which Reverend Moon used for brainwashing. It seems that he thought we brainwashed by using some kind of drug. At last he found a bottle of our Il Hwa ginseng tea. "Ah ha! That is it!" he exclaimed and ran off to try it. However, he could not experience any mental disorientation, only a feeling of well-being.

美國 靑年들은 내가 가지고간 무슨 약을 먹고 洗腦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人格革命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韓國땅을 통하여 내리신 새 말씀은 한번 듣기만 하면 人格革命이 일어납니다. 극히 利己主義的인 美國사람들이 世界를 위하여 犧牲하겠다고 나섭니다. 麻藥의 노예에서 解放됩니다. 淫亂했던 과거에서 解放됩니다. 父母에게는 孝道, 나라에는 忠誠, 하나님에게는 生命을 바쳐가며 奉仕하려는 거룩한 人格者가 되어갑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共產主義를 하나님의 怨讐로 認識하고 共產主義와 싸우려는 信念이 이 세상의 그 어떠한 信念보다도 강하게 타오르게 됩니다.

어찌하여 韓國이 택함받았는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救援하시려는 마지막 理念을 우리 祖國 韓國을 통하여 나타내시는 것입니까? 韓國은 무슨 資格이 있기에 끝날에 이와같이 택함 받은 나라가 되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韓民族은 '하나님의 사정을 알아드릴 수 있는 民族'이기 때문입니다. 歷史속의 하나님이 기쁘신 분이 아니라 슬픔의 帝王이심을 아는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創世期부터 자식을 잃은 父母였습니다. 아무리 帝王이라 할 자라도 자식을 잃은 父母는 悲慘하고 불쌍합니다.

歷史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불쌍한 아버지였습니다. 이 불쌍한 아버지에게 있어서 最大의 孝子는 그 아버지의 아픔과 슬픔을 대신하는 아들입니다. 韓民族이 바로 그런 위치에서 택함 받은 것입니다.

韓國의 5천년 歷史는 苦難과 試鍊의 歷史였습니다. 韓國은 오랜동안 가난했고, 外勢의 시달림 속에서 눈물의 맛을 알고, 슬픔의 맛을 안 民族이었습니다. 苦難의 歷史속에 試鍊을 당해온 韓國의 事情은 墮落한 人類, 곧 죽은 자식을 보고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事情과 같았습니다.

韓國 사람들은 눈물의 맛을 압니다. 그러니 눈물의 하나님을 理解할 수 있습니다. 韓國人은 古來로부터 悲劇을 좋아했습니다. 그것이 곧 墮落이라는 悲劇을 맛보신 하나님을 同情할 수 있는 資格입니다.

俗談에 "과부의 사정은 과부가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쁨과 영광 속에 權勢만을 누리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은 알고 보니 자식을 잃고 우시는 애절하고 외로운 아버지셨더라……그 하나님의 心情을 위로하는 참孝子가 될 것을 믿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韓國人은 自古로 忠孝의 節介가 높은 民族입니다. 國軍의 날 5·16광장에 招待되어 壯年國軍의 威容을 보고 흐뭇한 느낌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國軍將兵들이 查閱臺앞을 지나면서 외치는 '忠孝'라는 구호는 참으로 印象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民族으로서 부르짖는 구호로서는 너무도 啓示的이었습니다. 世界 어느 나라에도 이같은 구호를 외치는 軍人은 없을 것입니다. 韓國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忠誠하고 孝道할 民族이기에 그 忠孝精神이 오늘날 國家의 中心思想이 되어진 것입니다.

沈淸이 의 어버이를 위한 孝誠, 春香이 의 郎君 위한 節介, 鄭夢周의 임금 섬기는 忠誠, 柳寬順의 殉國精神, 이와 같은 忠孝의 節介는 東西古今 그 어디에서도 類例를 볼 수 없는 韓民族의 일입니다.

이와같은 忠孝精神과 松竹같은 節介는 앞으로 이루어질 地上天國의 中樞的인 精神과 思想이 되는 것입니다. 天國은 하나님의 나라이니 그 나라를 위해 永遠히 忠誠해야 하고, 하나님은 人類의 아버지이니 그 아버지께 永遠토록 孝道해야 합니다. 世界의 여러 民族을 놓고 아무리 試驗을 쳐 보아도 韓國 같이 그 忠孝의 열과 節介가 높은 나라가 없으니 하나님은 韓國을 택하시고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나아가 韓國은 平和를 愛護하는 白衣民族입니다. 우리는 한번도 누구를 侵犯해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은 平和愛護의 民族이 5천년의 固有한 歷史를 지



니고 건디어 왔다는 것 自體가 奇蹟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保護아래서만 可能했던 것입니다. 속된 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백'으로 가진 民族입니다.

5천년 歷史를 두고 여러 強大國이 여러 번 우리를 집어삼켰지만, 그 언제고 우리를 먹고 消化不良을 일으키지 않은 나라가 없었습니다. 먹고는 반드시 토해 놓아야만 했습니다. 이게 누구의 힘입니까? 하나님의 힘입니다. 8.15解放은 누가 갖다 주었습니까? 하나님의 힘입니다. 6.25 戰爭때 共產軍의 南侵을 막아준 것은 누구의 힘입니까? 하나님의 힘입니다.

6.25당시 美國의 '트루먼' 大統領의 決心이 사흘만 늦었어도 우리는 모두 釜山앞 바다에 밀려들어 갔을 것입니다. 韓國戰爭때 유엔군의 派兵은 유엔安全保障理事會에서 蘇聯의 拒否權이 있는 한 絶對不可能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韓國派兵問題를 討議할 때 蘇聯代表는 缺席을 했습니다. 그 틈에 派兵案은 一瀉千里로 可決을 보았습니다. 유엔 外交史에 그 때 蘇聯代表가 왜 缺席했는지를 지금까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는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能力이십니다.

韓國은 이 하나님의 특별보호가 있는 한 그 누구도 손끝 하나 까딱하지 못합니다. 韓國을 해치려는 勢力은 하나님의 힘에 의하여 하나하나 꺾이어 나갑니다. 이번 美國 議會에서 韓國을 망치려던 '프레저' 議員의 敗亡은 그 좋은 例입니다.



I have not brainwashed the American youth by any drugs. Rather, by hearing the words which God gave me they go through a revolution of character. Yes, that is true. If one hears even only one time the words which God has given through the land of Korea, a revolution of character takes place. Even the extremely individualistic American people step forth to sacrifice themselves for the world. Many become free from slavery to drugs and they become free from past sexual immorality. They become dutiful children and loyal patriots to their nation and by giving their lives to serve God they are becoming holy men and women of character.

Moreover, they recognize communism as the foe of God, and their desire to liberate mankind from communism burns brightest in the world.

How is it that Korea was Chosen?

How is it that God revealed the final ideology to restore the world through our fatherland Korea? What qualifications does Korea have in the last days to become the chosen nation?

To put it briefly, it is because the Korean people are "a people who can understand the circumstances of God." Throughout history no one knew that God was not a God of joy but rather the King of Kings of sorrow. God was the Parent who lost His children from the very day of creation. A parent who has lost his children is miserable and to be pitied even if He is the King of Kings.

The God of history was a Father to be pitied. The most dutiful son to this pitiable Father is the one who takes on the burden of his Father's sorrows. The Korean people were chosen for this position.

The five thousand year history of Korea was one of troubles

and trials. Korea was poor for a long time, and due to the bitter harassment of foreign powers the Korean people knew the taste of tears and the taste of sorrow. The circumstances of the Korean people who have gone through so many trials during their difficult history were similar to God's circumstances as He lamented seeing fallen mankind, His dead children.

The Korean people know the taste of tears. Therefore, they can understand the God of tears. It is not by accident that from ancient times the Korean people preferred tragic plays. The familiarity with tragedy is the qualification which allowed the Korean people to sympathize with God who tasted tragedy through the fall.

There is a proverb: "A widow knows another widow's situation." We have thought that God enjoyed power in joy and glory, but when we come to know God, we see that He is a pathetic, lonely Father who lost His children and is weeping. God is seeking with faith for us to become His dutiful children who will console His heart.

From ancient times the Korean people were recognized as having a high standard of loyalty and filial piety. When I was invited to the May 16 Plaza for our National Military Day this year and saw the majestic presentation of our arms my heart was filled with pride. And as the soldiers marched past the reviewing stand and shouted the slogan "Loyalty, Filial Piety" I was deeply moved.

If we understand these words as the slogan shouted by the chosen people of God, they are very revelational. I doubt there are any other soldiers in the world with a slogan like this. Koreans are the ultimate people who should give loyalty and filial piety to God. This is why the spirit of loyalty and filial piety has become the central thought of the nation today.

The famous filial love of the young girl, Shim Chung; the famous fidelity of the love of Choong Hyang for her husband; the loyalty of Chung Mong Ju to his king; and the spirit of patriotic martyrdom of the young Yoo Kwan Soon, all these are examples of types of filial piety, fidelity, and loyalty which are difficult to find in the East or the West, in the past or the present. Yet these stories reflect the spirit of the Korean people.

This spirit of loyalty and filial piety, together with integrity which is as steady as the evergreen and straight as bamboo, will become the backbone of the spirit and thought of the Kingdom of Heaven on earth to be established in the future. Since the Kingdom of Heaven is God's nation, one has to give loyalty to it eternally, and since God is mankind's Father we have to give eternal filial piety to Him. As much as God would test all the peoples of the earth, He could not find any nation with the integrity and a spirit of loyalty and filial piety higher than Korea. Therefore, He chose Korea and came here.

Moreover, the Korean people like to wear white clothes, love and keep peace. We are a nation which has never invaded another nation even once. It is like a miracle that a tribe like this which loves and keeps peace could have kept a pure history. This could be possible only through the protection of God. If we express it in slang, we could say, "God is backing our people."

Throughout our five thousand year history, foreign nations have swallowed up our nation many times, but each time they have suffered from indigestion. Each time they devoured us they had to spit us out again. By whose strength did this happen? It was God's strength. Who gave us the independence of August 15? It was God's strength. Who stopped the North Korean invasion during the Korean War? It was God's strength.

During the Korean War, if U.S. President Truman's decision had been made even three days later we would have been pushed into the sea at Pusan. Furthermore, as long as the Soviet Union held its veto power in the Security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 it was impossible to send U.N. troops during the Korean War. But when the problem of sending troops to Korea was discussed, the Soviet representative was not present. At that moment, the plan to send in troops was determined with high spirits and at top speed. In the diplomatic history of the United Nations, no one has understood why the Soviet representative did not participate at that very time. Who made it so? It was God.

No one can touch Korea as long as God's special protection is here. The powers which would like to harm Korea are being broken one by one through God's strength. The recent defeat of

여러분! 우리 祖國 韓國은 새 時代의 先驅者요, 하나님의 寵兒입니다. 우리는 오랜 苦難끝에 드디어 새 時代의 王者로서 登場할 때가 왔습니다. 이 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韓民族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韓國만 잘 살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世界救援을 위해서입니다.

韓國은 世界救援 役事を 위해서 召命받은 나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았으니 하나님의 世界救援 役事を 위하여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自身을 犧牲시킬 수 있는 사랑의 王者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죽는 것은 곧 사는 것이요, 苦生하는 것은 곧 榮光의 자리에 오르는 길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고자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한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韓國의 ‘새마을운동’은 歷史에 빛나는 民族의 自立, 更生의 金字塔입니다. 이는 檀君이래 그 類例를 보지 못했던 課業이며, 世界 어느 나라 歷史에도 이에 匹敵할 만한 記錄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工業發展은 戰後 日本이나 獨逸의 復興이 따르지 못하는 記錄입니다. 더군다나 이와 같은 急速度의 成長이 호시탐탐 南侵을 노리는 北傀 金日成을 눈앞에 놓고 이루어졌다는데 큰 意義가 있는 것입니다.

美國사람들은 本人을 보고 朴正熙 大統領과 무슨 密接한 關係가 있다고 뒤집어 씌우려 하지만 이것은 可笑로운 일입니다. 本人은 朴大統領을 한 번 만나보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잘하는 일을 보고 잘한다고 못한다면 이는 義人の 道理가 아닙니다. 朴大統領은 이 重要的 時期에 하늘이 내신 指導者라고 本人은 確信합니다. 이 분이 아니었던들 우리 祖國이 復興은 고사하고 金日成의 赤化野慾으로부터 견디기조차 어려웠으리라 本人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늘이 이 歷史的인 시점에 이와같은 指導者를 내시어 우리 祖國을 急速度로 復興케 하시는 理由가 있습니다. 이제 韓國이 새 精神文明의 發祥地가 되어 世界를 指導하고 世界에 雄飛할 때가 되었으니, 그 韓國이 이제 더 이상 苦難속에 구차스럽게 쪼들려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韓國을 이제 全權特命大使로 世界에 내보내시려는데, 그 大使를 남루한 걸레 옷을 입혀 나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禮服으로 盛裝시켜 世界앞에 나서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韓國은 名實共히 世界 指導者像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제 韓國은 어느모로 보나 世界 여러나라에 模範이 되고, 부러움의 對象이 되고, 그들의 尊敬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朴大統領은 이와 같은 課業을 成就하시도록 하나님이 祝福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韓國의 ‘새마을운동’은 “우리도 한번 잘살아 보자” 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됩니다. 韓國의 새마을운동은 世界를 잘 살게 하는 운동으로 昇華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새마을운동이 ‘새마을운동’으로 前進한 것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입니다.

‘새마을운동’이 내 몸을 잘 살게 하는 운동이라면 ‘새마을운동’은 내 靈魂을 잘 살게 하는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새마을운동’은 忠孝精神을 中樞로 하였으니, 이 ‘새마을운동’이 세계로 뻗어나갈 때 世界는 우리로부터 참다운 忠孝精神을 배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마을운동’도 한번 더 前進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궁극에 벌일 운동은 ‘새사랑운동’입니다. ‘새사랑운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운동입니다. 사랑의 極致는 犧牲입니다. 하나님과 世界와 나라와 同胞를 위해 犧牲할 줄 아는 운동으로 昇華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궁극의 가르침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基督教 歷史는 바로 이 새사랑운동을 하는 데서 항상 失敗하였습니다. 자기만 살고 자기를 위하여는 운동은 반드시 망합니다. 나를 죽여서 남을 살리게 하는 운동만이 永遠히 남습니다. 이스라엘 선민들이 바로 이런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十字架에 못박았습니다. 基督教의 全盛時期를 享有한 로마가 자기 중심의 利己主義에 날뛰는 때 그 帝國도 內部에서 崩壞되고 말았습니다.

한 때 하나님은 英國을 祝福하였습니다. 그 당시 英國은 “英國領土에 해지는 날이 없다”고 하리만치 그 威勢가 온 世界에 뻗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감 祝福의 뜻을 잊어버리고 世界植民地 政策이 自己中心이 되었을 때, 英國의 衰退는 가을 나무잎과 같았습니다. 그들도 ‘새사랑운동’을 못한 데서 衰退한 것입니다.

오늘날 美國도 로마제국이 부럽지 않은 權勢와 祝福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들도 2백년동안 ‘새마을운동’도 잘했고 ‘새마을운동’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날에 世界를 위해서 犧牲하는 이 ‘새사랑운동’을 못하면 美國의 앞날은 암담할 것입니다.

韓國도 이 하나님의 原理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새사랑운동’입니다. 나를 犧牲하고 내 나라를 犧牲해서라도 共產主義를 막고 世界를 잘 살게 만들자고 하는 犧牲的인 사랑에 불타지 않는한 우리도 역시 한번 잘 살아보고는 지금 先進國들이 빠지는 함정에 같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統一教會는 지금 그 ‘새사랑운동’을 五大洋 六大洲 1백20여개 國家에서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운동은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으로 名實共히 五色人種이 한 兄弟가 되는 理想이 實踐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統一教會가 이끄는 ‘새사랑운동’의 본 故鄉은 우리 祖國 大韓民國인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祖國이여 빛나라, 너는 드디어 하나님의 召命을 받았도다. 世界를 살리는 새사랑운동의 本鄉이 되었도다.”

이것이 오늘아침 여러분께 드리는 本人의 證言의 전부입니다. 우리 韓民族의 急先務는 ‘覺醒’입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 받았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選民됨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 잘살기 위한 選民이 아니라 世界를 잘살게 만드는 選民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使命을 깨닫고 한데 뭉쳐 이 일을 實踐할 때 하나님의 祝福은 永遠히 우리의 祖國과 같이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王子된 자리에서 새시대의 先驅者가 되며, 祖國의 榮光은 永遠無窮할 것입니다. *

Congressman Fraser, who sought to destroy Korea through the U.S. Congress, is a good example of this.

Ladies and gentlemen! Our fatherland Korea is the forerunner of a new era and a favored child of God. Our long-endured difficulties have passed and at last the day has come that we should step forward as the kings of a new era. But the reason God called Korea is not to give life only to Korea: *it is to save the whole world.*

Korea should realize that it has been called to the task of saving the world. Since we have been called by God, we should be kings of love who can sacrifice ourselves before anyone else for the task of God's salvation of the world.

To die for this task of God is to live, and to suffer for it is the way to glory. This is the meaning of Jesus' words, "He who seeks to save his life will lose it, and he who loses his life for my sake will find it."

The "New Village Movement" of Korea is a brilliant, monumental demonstration of self-reliance and revival. Such an achievement cannot be found in our history since the time of Tan Geun, the founder of Korea, and there is no record showing that it has an equal in the history of any other nation.

The present industrial development of Korea surpasses even the reconstruction of Japan and Germany after the war. The fact that this rapid growth took place in the circumstance of facing Kim Il Sung, who is searching out every chance to attack the South, has great meaning.

The American people have tried to accuse me by saying that I have a close relationship with President Park Chung Hee, but this is a laughable matter. I have never met President Park even once.

It is not the way of a righteous person to refuse to recognize good acts as goodness. I firmly believe that President Park is a leader chosen by heaven for this important era. I think that if it were not for him it would be very difficult to endure the constant threat from Kim Il Sung, and the reconstruction of our fatherland would not be possible.

There is a reason why heaven has helped our fatherland develop very rapidly through choosing such a leader at this historical time. It is because the time has come for Korea to guide the world and to take a great leap into the world as the creator of a new spiritual culture. To do so Korea must shed its poor and humble image of the past.

To say it in another way, God wants to send Korea as an ambassador to the world. But He cannot send an ambassador in dirty, ragged clothes. Instead God wants to send him forth in full ceremonial dress.

Korea should acquire the image of a leader of the world both in name and in reality. Korea should become a model for the whole world, an object of admiration which can be respected by others in every aspect. President Park is a person whom God has chosen in order to accomplish this task.

However, Korea's "New Village Movement" should not stop with the motto of "Let's live well." The Korean "New Village Movement" should develop into a movement to make the whole world live well. The fact that this "New Village Movement" has developed into the "New Mind Movement" is in line with God's will.

Just as the "New Village Movement" is a movement to let the body live well, the "New Mind Movement" is the movement to let the spirit live well. The backbone of this "New Mind Movement" is the spirit of loyalty and filial piety. If this "New Mind Move-

ment" spreads throughout the world, the world will learn the true spirit of loyalty and filial piety from us.

But this "New Mind Movement" should progress to one more level. The movement which we should ultimately begin is the "New Love Movement." The focus of the "New Love Movement" is to love God as our Father and to love our neighbors as ourselves. The crown of love is sacrifice. The "New Mind Movement" should develop into a movement which knows how to sacrifice for God, for the world, for the nation and for all fellow countrymen.

This is Jesus' ultimate teaching, but in history Christianity always failed to accomplish this "New Love Movement." Any movement which lives only for itself will necessarily fail, while any movement which is willing to die to let others live will remain eternally. Because the chosen people of Israel didn't understand this, they rejected Jesus. When Rome, which enjoyed the prosperity of the highest days of Christianity, became self-centered, even that great empire finally collapsed internally.

God also once blessed England. There was a time when England's power was spread so widely over the earth that one could say, "The sun never sets on the British Empire." But when her global colonial policy began to center on herself and she forgot the meaning of God's real blessing, England's decline hastened like the falling leaves of autumn. She declined because she didn't know the "New Love Movement."

Today America enjoys such power and blessings that it has no reason to envy Rome. For two hundred years America has practiced well the "New Village Movement" and the "New Mind Movement." But if in the last days America does not practice the "New Love Movement" which is willing to sacrifice for the world, the future of America will be gloom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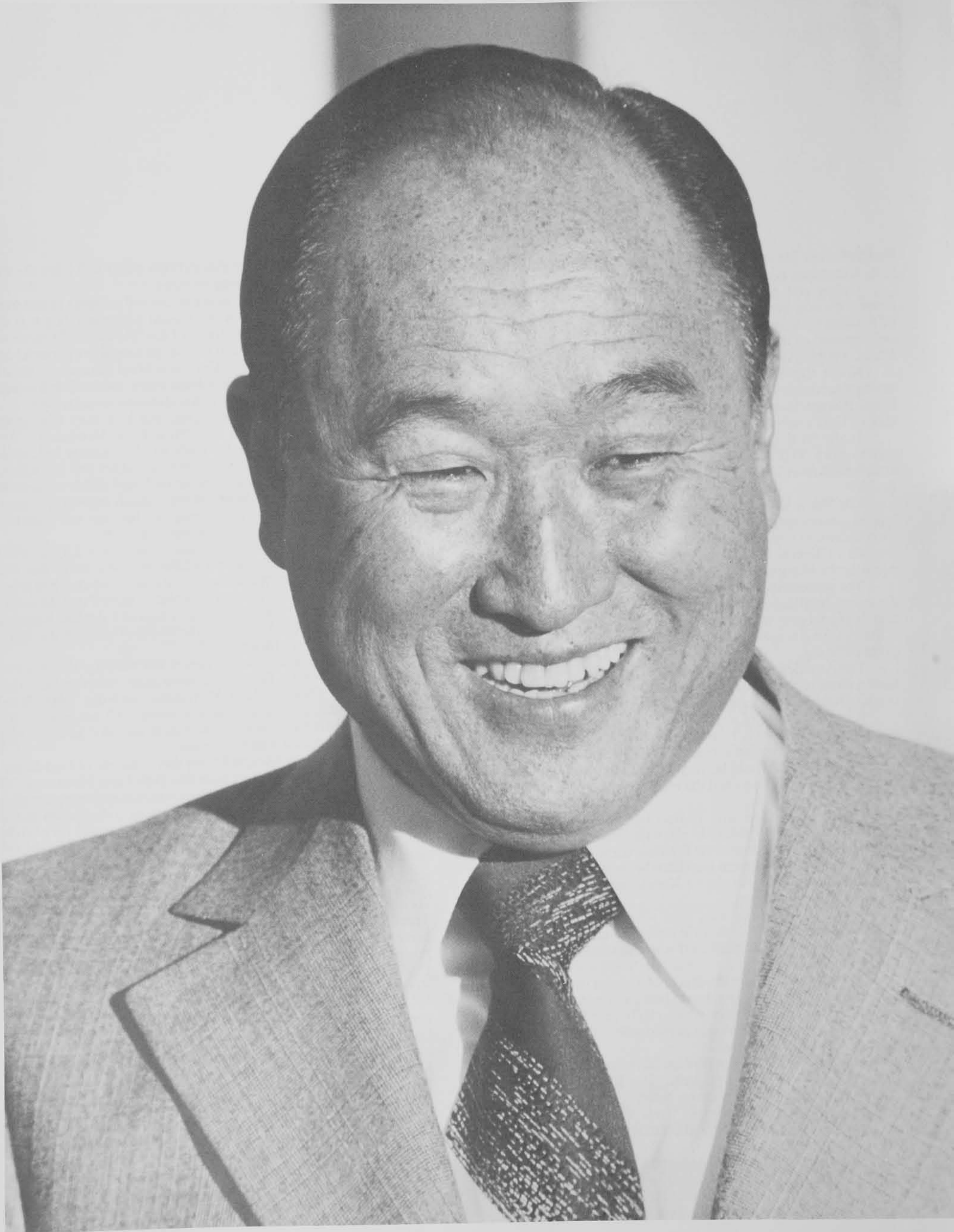
Korea cannot be excepted from this principle of God either. The way we should ultimately go is the "New Love Movement." If we are not burning with sacrificial love which is willing to sacrifice even self and nation to protect the world from communism and to help the whole world live well, we may be prosperous for a while but we will eventually fall into the same trap of decline that the developed countries are experiencing today.

The Unification Church is now spreading this "New Love Movement" to over 120 countries throughout the five oceans and six continents. And God is working together with this movement. Through this movement the ideal of unity of the five races becoming brothers and sisters in both name and reality is being practiced. The homeland of the "New Love Movement" which the Unification Church is leading is our fatherland, the Republic of Korea.

Shine forth my beloved fatherland! You have at last been summoned by God. You have become the homeland of the "New Love Movement" which will save the world.

This is the testimony which I offer to you this morning. Our Korean people's most urgent task is "awakening" it is to awaken. We should awaken to the fact that we have been summoned by God. We should awaken to the fact that we are a chosen people. We should awaken to the fact that we have not been chosen just to live well ourselves, but we are the chosen people who should live to help the whole world live well.

When we awaken to this task, unite into one, and accomplish this work then God's blessing will remain with our fatherland forever. We will become the forerunners of a new age as princes of God, and the glory of the fatherland will be eternal and limitless.







文鮮明先生招請

主催：韓国地域社会開発局



文鮮明先生招請講演会

主催：韓国地域社会開発研究院



文鮮明先生招請講演会

主催：韓国地域社会開発研究院







ISBN 0-942340-01-9